

H씨의 꿈

서울 의 강남문화원 원장 H씨(78세)는 2주간의 세계일주여행에서 지금 막 돌아왔다. 공항에 미중 나온 손녀가 할아버지를 맞으며 반갑게 인사한다.

“할아버지, 여기요. 어떠셨어요. 건강은?”

“오냐, 그런데 뭐하러 나왔니. 아침에도 문안 인사하고선...”

H원장은 40여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전부터 괴롭히던 당뇨 때문에 시달려야 했으나 십여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에 대한 유전자 요법이 실용화되면서 고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당뇨병만이 아니라 암과 심장질환이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인간의 노화를 늦추고 방지하는 처치법이 개발되어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단지 젊어 보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건강해지고 정력을 누리게 되었다. 옛날의 3D산업은 거의 로봇에 의해 처리되고, 사람들은 스포츠나 레저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각 개인의 기호와 특성에 맞춰서 건강증진 식단을 짜고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한다.

H원장 은 오늘 새벽, 뉴욕의 한 호텔에서 기억장치 겔로 된 튜브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

튜브 안에는 전류가 흐르는 피드백 감지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머리와 팔다리, 몸통이 안락하게 침대에 밀착되도록 조절해 주고, 예정된 수면시간이 지나서 컴퓨터의 신호에 따라 겔로 된 침대의 표면이 펼쳐지면서 단단해졌다. 음악이 흐르면서 잠을 깨우고 동시에 방 안의 조명이 밝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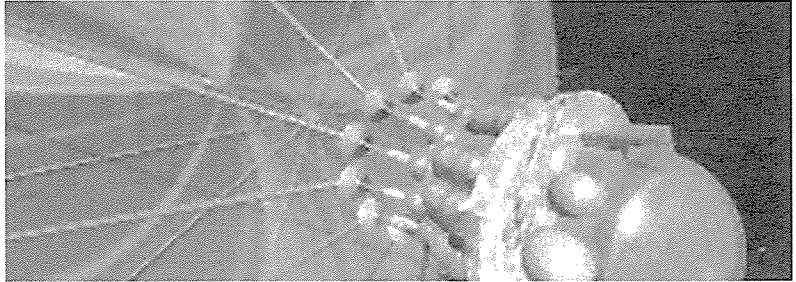
식탁 앞에 앉으니 로봇이 주스와 커피, 토스트와 노화방지용 영양제를 배달하고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면서 그의 옆에 대기하면서 지시를 기다린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앞의 벽면 전체의 입체 TV화면에 뉴스가 방영되는데 이는 이미 컴퓨터가 그가 관심을 갖는 중요 내용만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놓았으므로 15분으로 요약되어 있었다. 출발시간에 맞추어 차에 올랐다. 이미 로봇이 짐을 차에 실어 놓고 ‘안녕히 가십시오’하고 인사하며 문을 닫았다.

그가 탄 전기 자동차는 핸들이 없으며 몇개의 보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그만이다. 자동차 컴퓨터에 공항으로 가는 길을 프로그램해 놓았으니까 차는 자동으로 나아간다. 도로 밑에 설치된 알루미늄이 차선을 조정해 주고 레이더에 의해 다른 차량과의 거리는 유지된다. 호텔에서 출발한 차는 이내 고속지하터널을 빠져 나와 공항에 이

르자 자동차는 공항 출국선 현관에 멈춰서고 H원장은 계기판 센서 몇개의 보턴을 눌러 차가 자동적으로 호텔에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공항에서 핵추진 여객기에 올라 서울로 돌아오기까지는 꼭 두시간 정도 걸렸을 뿐이다. 급세기 초 11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해 무려 1/5로 비행시간이 단축된 것.

항공 우주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손녀는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의 손가방을 받아들며 “할아버지가 타고 오신 항공기는 우리나라에 취항한지 이틀째로 한국인 으론 열일곱번째 승객이세요.”라고 말한다. “글쎄다. 기내에서도 이 핵추진 항공기 취항에 대한 방송을 들긴 했다만 내가 열일곱번째 승객이 된 것은 몰랐구나.”하며 환하게 웃는다. “연료가 종전 제트항공기의 1/12 밖에 소모되지 않는 무인 조종비행기에요. 무중력 우주공장에서 생산된 초강도의 가벼운 특수물질로 제작된 기체거든요. 화성탐사에 성공하고 화성여행을 시도할 수 있게된 것도 이 핵추진 기술 덕분인데 종전에 화성에 도달하는 시간을 1/3로 단축하게 되었어요.”

활달하고 상냥한 손녀의 설명에 흠족해진 H원장은 “그렇구나. 세상은 많이도 변했다. 그저 놀라울 뿐이다. 지



난 1주간의 여행이 믿어지지 않는다. 내 상식으로 그렇게 단시간에 세계 곳곳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훗훗.. 그러실 거예요, 할아버지. 1주간의 세계여행을 가능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핵추진 항공기 덕이라고요.” “그랬었구나. 태평양 연안을 날면서 바다를 누비는 고래 떼들을 보면서, 밴쿠버 북쪽의 금렵구로 지정된 섬에서 만난 독수리와 시베리아 호랑이, 알래스카의 거대한 개방 동물원, 무엇보다 멕시코 해안 캘리포니아 지역 대륙붕에 건설된 해저도시를 찾았을 때의 놀라움과 감명을 어찌 잊겠느냐? 그러나 그때 핵추진 항공기란 걸 몰랐었구나. 이 할아버지가 구경하느라 들떠있었기 때문인가. 이제 내가 너무 늙은 탓인가!”

“아니예요,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년만큼이나 원기왕성하세요. 내년 2월 말로 원장직에서 물러나시면 진짜 놀랍고 멋진 경험을 하시게 될지 몰라요. 화성에 새로 건설된 우주기지 시험입주자 모집이 있는데 할아버지만 좋으시다면 제가 적극 추진 할래요. 이번 계획은 달 이후 인류가 두번째로 진출하는 우주에서의 생존환경을 테스트하려는 것인데 어때세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연구원 한사람이 탑승하기로 되었거든요.”

모든 우주 수송은 열 핵융합 로켓으로 추진하는 거대한 우주선이 맡게 되었다. 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개발됨으로써 우주비행 비용이 크게 낮아져 조그만 연구도시가 화성에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공해발생 원인이 되는 산업들이 지구에서 추방되면서 이들 산업에서 얻어지는 자재들을 우주에서 가져와야 할 형편이 되었다. 그리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군에 새로운 광산단지가 개발되고 희소원소의 10%를 그 곳에서 조달하고 있다.

더 높고 더 멀리 가보려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지구 밖으로 나아가게 했다. 우주를 향한 발길이 이어진지 70여년. 그러나 인간은 이제 우주의 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고갈되고 있는 지구자원 대신 우주의 무한한 자원을 이용하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주개발국 간에 이해가 갈리는 경우가 생겨, 우주자원 공동개발협약이 체결되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한 우주개발연구소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소행성의 광물을 무단 채취해 온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었는데 이 연구소는 과학탐사를 가장하여 우주자원 공동개발협약을 어기고 금, 플래티늄, 코발트 등의 광물을 몰래 캐내왔다는 보도였다.

2028년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다. 우주기지의 시험입주자 선발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시아 최초의 유인 달 탐사선이 발사된 지 5년, 한국과 일본이 주축이 돼 아시아 국가연합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계획은 앞으로 수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민도시를 달에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이미 추진 중에 있다. 거기다 이번 화성에 건설되는 우주기지 시험입주자 중에 78세의 H씨가 선발되었다는 보도에 세계의 눈길이 쏠렸다.

“할아버지, 지금 외신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흥분하고 계신데 지금 인터뷰 괜찮으시겠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좀 피곤하다. 기자 인터뷰는 내일이 좋겠구나. 좀 쉬어야겠다.” H씨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오늘 밤은 잠들기가 힘들다. 단추를 눌러서 20%의 산소와 80%의 크세논 가스를 폐로 흡입시킨다. 3분 내지 5분이면 수면상태가 된다. 옛날에 복용하던 수면제와는 달리 크세논 마취에는 후유증이 없다. H씨는 깊은 잠에 빠져든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자의 모습으로... ⑤7

池 棋 旭 <자유기고가>